

박물관 전문직 양성과 박물관학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최종호*

목 차

1. 박물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2. 박물관학과 박물관지학, 박물관연구의 상관관계
3. 박물관학 교과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4. 21세기 박물관 전문직 양성을 위한 제안

1. 박물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 글은 박물관 전문직 양성에 관한 문제점과 박물관학 교과과정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21세기 문화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 양성과 우리나라 박물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enjoyment)을 위해서, 인간(people)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communicate), 전시한다.”¹⁾ 또한 “(i)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교류하는 자연과 고고학, 민족지의 기념물과 유적지, 그리고 박물관 성격을 가진 역사적 기념물과 유적지; (ii) 동·식물원과 수족관, 동식물사육장처럼 동물과 식물의 수집품을 갖고 있고 살아 있는 표본을 전시하는 기관; (iii) 과학관(science centres)과 천문관; (iv) 도서관과 기록보존소(archive centres)에서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보존과학 기관과 전시화랑; (v) 자연보존지역; (vi)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뒤 집행위원회가 박물관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또는 상당히 갖고 있거나 박물관학적인 연구나 교육, 훈련을 통해서 박물관과 박물관 전문직원을 후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 밖의 기관;”²⁾을 국제박물관협의회가 박물관으로

* 한국민속촌박물관장/순천향대학겸임교수, 박물관학박사

1) ICOM, 1990. *ICOM Statutes / Code of Professional Ethics, Paris* (Paris:ICOM) 3. & 15., 최종호, 1996,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박물관학연구』(대전:대전보건전문대학 박물관학연구소) 창간호, 11.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박물관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지난 1984년 제정 공포된 우리 나라의 박물관법에는 박물관을 박물관과 준박물관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였지만, 오늘날 현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는 등록요건에 따라 1종 박물관과 2종 박물관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한국의 박물관을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유형은 법적으로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 둘째 유형은 법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나 박물관의 활동과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첫째 유형은 현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명칭이 붙어 있는 박물관; 둘째 유형은 고고학적인 유적지나 역사적 기념물, 민속경관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동식물사육장, 과학관, 천문관, 보존과학연구소, 미술품전시장, 고문서보관소, 자연보존지역 등의 문화적 교육적 공간으로서 박물관 같은(museumlike) 곳이다. 어떤 유형의 박물관에서든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는 박물관학적인 훈련을 받고 실무 경험을 익힌 후에 근무할 수 있으며, 박물관 전문직원의 윤리요강을 준수해야 한다.³⁾ 1986년 11월 4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 15차 국제 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박물관 전문직원의 윤리요강은 I. 총론, 1 정의, II. 기관의 윤리요강 2 박물관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3 박물관 수집품 취득, 4 수집품의 처분, III. 전문직원의 행위 5 일반 원칙, 6 수집품에 대한 개인의 책임, 7 대중에 대한 개인의 책임 8 동료와 직업에 대한 개인의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박물관을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는 다양한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미국 박물관 협회(AAM)의 박물관학(museum studies) 교과과정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렬은 1. 관리위원회, 2. 관장, 3. 학예연구원, 4. 교육담당자, 5. 전시디자이너, 6. 편집인, 7. 보존과학자, 8. 자료관리자, 9. 사서, 10. 홍보기획담당자 11. 서무담당자, 12. 시설관리담당자, 13. 안전요원으로 구분되어 있다.⁵⁾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는 박물관임직원과 박물관학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 조직체계 구조는 크게 5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⁶⁾ 첫째, 박물관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가 동등한 수평적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둘째, 박물관이 경비 절감을 위해 학예부서와 여러 사업 부서를 나누고 일반 행정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셋째, 학예 업무의 분야별로 부서를 나누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부서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넷째, 지리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박물관에 대한 책

2) ICOM, 1990. 『앞책』(주 1) p. 1. 최중호, 『앞책』(주 1) 15.

3) ICOM, 1990. 『앞책』(주 1) 24.

4) ICOM, 1990. 『앞책』(주 1) 23-35.

5) AAM, 1973. *Museum Studies: A Curriculum Guide for Universities and Museums* (Washington D.C. AAM), 16-19.

6) Diamond, Michael., 1984. Personnel Management, in Thomson, J.M.A. *Manual of Curatorship: A Guide to Museum Practice* (London: Butterworths), 507-510

임을 학예연구실별로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다섯째, 박물관 건물별로 학예연구 책임자와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고 그 아래 각 분야별로 부책임자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중·소규모 박물관의 조직체계는 박물관장의 지휘감독 아래 학예연구부서와 행정관리부서가 있다. 학예연구직 부서의 조직체계는 학예연구보조원(Curator Assistant), 학예연구사(Assistant Curator), 학예연구관(Curator), 학예연구실장(Chief Curator) 등이 있고, 규모가 큰 박물관의 경우에는 각 등급사이에 차석 또는 보조를 두기도 한다. 행정관리직 부서의 경우, 일반행정담당직원과 재무담당직원, 시설관리담당자, 안전요원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박물관장이 관내에 부재중이거나 이석할 경우, 행정관리 책임자가 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직과 규모가 방대한 박물관의 경우, 학예, 행정, 교육, 연구, 설의, 기록, 보존, 전시, 공연, 안전관리, 후생복지 등의 부서가 있고, 외관 디자이너, 내부 디스플레이어, 컴퓨터 엔지니어, 웹마스터, 그래픽 디자이너, 오피레이터, 사진작가, 동영상 연출자, 목수, 모형제작자, 박제전문가 등의 박물관전문기술직들이 함께 공동작업을 펼치기도 한다.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의 양성은 박물관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학예연구직이란 직능으로만 박물관 전문직원을 채용해서는 안된다. 박물관학은 좁은 의미의 박물관학(박물관이론;museology)과 博物館誌學/박물관기술학(박물관실습;museography)로 구분될 수 있다. 학예연구직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다양한 박물관 전문직 직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절대적인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의 규모가 큰 박물관에서는 직종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물론 고전적 의미의 학예연구직(;Curator)은 박물관의 꽃이요 박물관을 이끌어 가는 만능 일꾼이었다. 그러나 전문 분야가 분업화된 현대의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직은 단순히 연구분야에 치중하는 바가 자못 크기 때문에 그 밖의 전문 직원 채용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직렬에 따라 다양한 직종의 구직과 고용에 대한 기회 균등이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박물관과 교육기관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차적으로 학예연구직과 보존과학직, 교육·정보관리직, 행정·시설관리직 등으로 전문인력을 대학에서 양성하여 그들의 자질을 채용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전후로 다양한 박물관 실습을 통해서 자격증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6년 2월 경기도에서 시행한 경기도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채용공고를 보면 문화사와 문화인류학이 시험과목이었다. 민속학이나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 건축사 전공자들은 전공분야의 과목을 팽개쳐 두고 시험에 불기 위해 오직 문화사나 문화인류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시험에 불을 가능성이 높았다. 물론 시험 출제자와 채용 담당자들은 응시자들이 전공분야의 과목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처럼 응시자가 전공분야의 과목은 소홀히 하고 시험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면 전공분야의 실력이 형편없는 응시자가 특정분야의 학예연구사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예연구직의 올바른 채용을 위해서라도 출제 시험과목과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2. 박물관학과 박물관지학, 박물관연구의 상관관계

박물관학(Museology)은 희랍어의 학문을 뜻하는 단어 로고스(Logos)와 희랍신화에 나오는 제우스(Zeus)신의 딸들인 뮤제스(Muses)의 이름을 합성한 것이다. 어원학상의 분석일 따르며, “뮤제스는 창조적인 구상력과 무한대의 기억을 지닌, 죽어야 할 운명을 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닌 것으로 믿는 여신들이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억과 민속예술, 음악, 시(詩), 은유한 흥겨움과 조화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의 춤과 노래가 인간들의 슬픔과 고뇌를 잊게 하였다.”⁷⁾고 한다.

뮤제스의 신화적 성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박물관학은 철학도 문학도 공연예술도 아니고 분과학문의 전체 목록을 포괄한 종합과학이다. 박물관학은 박물관의 물질자료와 박물관 자체, 박물관의 운용, 박물관 종사자에 대한 연구이다. 한마디로 박물관학은 뮤세이온(Mouseeion)의 계승자인 박물관(Museum)에 관한 연구이다. 뮤세이온은 이집트의 왕, 톨레미 필라델푸스(Ptolemy Philadelphus)에 의해 기원전 280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 세워졌던 세계 최초의 박물관 원조(元祖)로서 기원후 4세기까지 존속하였다.⁸⁾ 뮤세이온(Mouseeion)에서 철학연구는 뮤제스를 섬기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곳에서 철학자들이 일상사를 잊고 무아(無我)의 경지에 젖어들 수 있는 성스런 사원이자 교육기관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토미슬라브 솔라(Tomislav S'ola)는 “우리가 그 어원(뮤제스를 뜻함)을 받아들인다면 박물관이 사원의 길목에 있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한 여신인(뮤제스의 7신 가운데 하나) 므네모이시스(Mnemoisis)신에게 가는 길목에 있었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⁹⁾ 아무튼 우리들의 박물관에 거대한 이름을 빌려준 알렉산드리아의 헬레니틱(Hellenistic) 박물관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 관심은 오늘날 박물관의 지적인 측면으로 관심이 옮겨졌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박물관과 박물관의 개념 또한 바뀌어 왔다.

1962년 6월 스위스의 뉴셔텔(Neuchatel)에서 개최된 제6차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의 박물관문제”라는 주제를 다루었으며, 박물관에 대한 정의

7) Decharme, P., 1886. *Mythologie de la Greece Antique* (Paris : Garnier) 재인용 Wittlin, A. S., 1970. *In Search of Usable Future* (Massachusetts : MIT Press) 190.

8) Wittlin, A. S., 1970. 『앞책』 (주 7) 290.

9) Sola, Tomislav, 1984. *Collecting Today for Tomorrow, Proceedings of Symposium on Collecting Today for Tomorrow* (Leiden : ICOM / ICOFOM) ISS, 6-7.

(定義)를 또한 채택하였다. 그 당시에 채택한 박물관 정의는 “박물관을 학습과 교육, 위락(entertainment)을 위해서 문화적 또는 과학적인 의미를 지닌 수집품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항구적인 기관이다.”¹⁰⁾고 하였다. 오늘날의 국제박물관협의회 박물관 정의와 비교해 볼 때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봉사하고 공중에게 공개된”이란 포함되지 않았던 구절이 1971년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반영되었다.

1965년 미국의 뉴욕(New York)에서 개최된 제7차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박물관학과 박물관지(博物館誌); 博物館學習; 博物館技術; Museography)가 포함된 박물관 훈련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 당시에 “1) 박물관학은 박물관 이론에 관한 교습과정이고 고급 박물관 종사자를 위한 것이다. 2) 박물관지는 박물관 작업의 다양한 기술을 다루고 특히 박물관의 기술진들을 위한 것이다.”¹¹⁾고 정의하였다

그레노블(Grenoble)에서 1971년 9월에 개최된 제9차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박물관학을 “박물관에 대한 학문”(Science of Museums)으로 재규정 하였다.¹²⁾ 실제로 총회기간중에 몇몇 참석자들이 강력하게 박물관의 철학과 목적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와이 오돈(Y. Oddon)은 박물관 종사 훈련을 위한 국제박물관협의회 교과과정표를 박물관 종사자 훈련을 위한 국제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총회에서 국제박물관협의회는 “박물관학은 이론적인 훈련을 위한 것이고, 박물관지는 실습훈련을 위한 것이다.”¹³⁾고 인정하였다. 와이 오돈(Y. Oddon)은 국제박물관협의회 보고서에서 “어떤 수준에서든지 박물관학의 전문적이거나 직업적인 훈련에는 박물관이나 실험실에서 실습을 포함해야만 한다.”¹⁴⁾고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과과정표는 이론 위주로 짜여 있다. 물론 박물관학과 박물관지학의 학문적인 결합과 분리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양자사이의 적절한 결합은 박물관 전문가를 위한 훈련에 있어서 폭 넓은 성취와 양자의 상호 보완 관계의 학문적 진보이다. 양자사이의 분리는 학문의 실질적인 전문화 작업에 이바지할 것이고 독창적인 영역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국제박물관협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박물관학은 박물관의 역사와 사회에서의 박물관의 역할, 연구방법, 보존과학, 교육, 조직구성, 그리고 환경과 유형론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¹⁵⁾고 규정되어 있다. 박물관학은 크게 두가지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박물관학의 독

10) ICOM, 1964. The Problems of Museums in Countries Undergoing Rapid Change, *The Proceedings of ICOM General Conference - Neuchatel*, 1962년 6월 17-25일간, (Paris : ICOM) 30.

11) Jelinek, J., 1970. Museology and Museography in Museums, *Training of Museum Personnel* (London : ICOM) 23.

12) Hudson, Kenneth, 1977. *Museums for 1980s* (Paris : Unesco) 15.

13) Oddon, Y., 1971. *Professional Training of Museum Personnel in the World* (Grenoble : ICOM) 재인용, Hudson, Kenneth, 1977. 『앞책』 (주 12) 152.

14) Hudson, Kenneth, 1977. 『앞책』 (주 12) 152.

15) Hudson, Kenneth, 1977. 『앞책』 (주 12) 151.

립과목의 핵심인 일반박물관학과 박물관에서 활용되어온 학문의 전문적인 영역에 일반 박물관학의 응용분야를 다루는 특수박물관학(specialized museology)이었다.”¹⁶⁾ 이와 관련하여 지 이 버코(G. E. Burcaw)는 “간략하게 박물관학은 박물관의 목적과 조직구성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지식의 분야이다.”¹⁷⁾고 요약했다. 미국 박물관협회(AAM)는 “박물관학은 박물관의 역사, 철학, 기능, 그리고 관리를 포함하고 박물관 업무에 대한 전체 개념과 분야를 다룬다. 이에 반하여 박물관지학은 효과적인 박물관 전시의 해석을 창출하기 위해서 결합되는 예술, 공예, 고안 그리고 기술을 포함한다.”¹⁸⁾고 규정하였다.

이미 1970년에 제이 젤리네크(J. Jelinek)는 “박물관학과 박물관지학의 이론과 실습에 대한 교습의 필요는 보존과 복원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전시물의 준비와 배치, 전시 보조물과 모형제작, 본뜨기, 주조 그리고 주조물의 복원, 전시작업, 수집품연구, 해충 등으로부터 수집품의보호를 포괄한다.”¹⁹⁾고 언급하였다.

한편 에스 제이 박지(S. J. Baxi)와 브이 피이 디위베디(V. P. Diwivedi)는 박물관지를 “응용박물관학”(Applied Museology)즉 “온갖 박물관의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박물관 기술의 실습이다.”²⁰⁾고 정의(定義)하였다. 이를 보다 발전시켜 지 이 버코(G. E. Burcaw)는 “박물관지학은 박물관과 관련된 기술의 주체로서 온갖 박물관의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고 박물관의 운용에 관련된 방법과 실습을 포함한다.”²¹⁾고 설명하였다.

필자는 박물관학과 박물관지학, 박물관연구의 개념과 영역 그리고 상관관계를 요약하기에 앞서 박물관지학(博物館誌學; 博物館技術; 博物館學習; Museography)의 용어 사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어원학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박물관지 연구 또는 박물관지학(博物館持學)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자는 ‘박물관지학’을 선택한다. 학문의 대상 영역에서 용어를 선택한다면 박물관 기술학이 적절하다고 믿는다. 박물관실습은 박물관지학을 박물관학에 포함시킬 요소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실습’이란 용어를 선택하지 않았다.

박물관연구(Museum Studies)는 박물관학과 박물관지학의 연구 대상과 영역을 포괄한 종합과학이다. 박물관학(Museology)은 박물관과 박물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론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에 박물관지학은 박물관의 환경과 운용을 주 대상으로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박물관학과 박물관지학은 독립된 과목으로서 또는 상호보완 연구를 필요로 하는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6) 王宏鈞, 1990. 『中國博物館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2-14.

17) Burcaw, G. E., 1975. *Introduction to Museum Work* (Nashville: AASLH) 12.

18) AAM, 1973. 『앞책』(주 5) 20.

19) Jelinek, J., 1970. 『앞책』(주 5) 20.

20) Baxi, S. J. & Diwivedi, V. P., 1973. *Modern Museum* (New Delhi: Abhinav Publications) 203.

21) Burcaw, G. E., 1975. 『앞책』(주 17) 21.

박물관전문직 종사자들은 누구나 특수박물관학 분야의 전공 영역을 갖게 되지만 1950년대 이후로 들어와 순수 박물관학(general museology)이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서 번창하면서 박물관학 전공자들이 현대박물관학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3. 박물관학 교과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미국에 있는 New York University와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경우, 미술사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박물관학과정을 설치되어 있는데, 정규미술사 강좌이외에 미술박물관사, 박물관학개론 등 12개 과목(36학점)을 이수하게 되며, 3년 과정중의 마지막 해 1년 동안 정부가 인정하는 미술박물관에서 박물관 경영, 보존, 전시, 유물등록 등을 구체적으로 실습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문화부가 발급하는 1급 미술학예원 자격증과 미술사 석사학위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51년 박물관법에 의거, 학예원은 (1) 학사학위를 지닌 자가 문부성령에 의거 박물관학 관계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 (2)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으로 박물관학 관계과목중 62학점이상을 획득하고, 3년이상 학예직원으로 근무한 자. (3) 기타 문부대신이 인정하는 학력과 경력을 지닌 자 등이 국가시험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자격시험은 박물관학, 문화사, 시청각교육개론, 사회교육개론, 교육원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다시 전공별로 민속학, 고고학, 미술사, 생물학, 지학 등에서 선택하여 소정의 합격권내에 들면 자격증이 인정된다.

영국의 경우, 1938년부터 박물관협회 주관으로 박물관전문직원의 면허수여검정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격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Leicester University 와 Manchester University 박물관학과 졸업생의 경우이다. 그외 지원자의 경우 3년동안 3단계의 박물관학 강좌와 실습을 마친 후 수료증서 소지자만이 박물관전문직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검정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검정시험은 필기, 구술, 박물관지(기술)학 실습, 박물관사업에 관한 논문, 수험자가 실습한 업적 등이며, 이 시험에 합격하여도 박물관협회가 인정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연후에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27년에 루브르 박물관 부설 루브르학교; 에콜 드 프랑스 (Ecole du Louvre)에서 인문과학계박물관학예연구직을 위한 박물관학교를 개설하여 보존과학자; 콩세르바퇴르(conservateur)와 박물관교사; 콩페랑스(conferences)의 자격을 주기 위한 연수기관을 설치하였다. 1990년 1월이후 박물관전문직은 6개분야; 박물관담당, 문화재목록작성담당, 역사적건축물담당, 고고학담당, 고문서담당, 문화재도서관담당으로 직능이 분리되어 국가자격 인증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자격시험은 박물관직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시험과 박물관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시험 2가지가 있다. 외부시험의 경우 시행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30세미만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내부시험의 경우, 시험시행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국가자격인증시험의 경우 1차는 필기; 문화사에 대한 종합시험(평점 5)과 논술(평점 5), 2차는 전공분야에 대한 구두시험을 통해서 평가한다. 박물관학예직인증시험에 합격했을지라도, 국립문화재관리학교에서 18개월간 연수교육을 시킨후 국가자격인증을 부여한다.

전세계적으로 박물관전문직 양성과 채용 추세는 전문직종을 세분하여 박물관학 강좌를 이수하고 실습을 마친 후에 박물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물관학 강좌를 이수해도 박물관에서 실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국가자격인증을 부여해서도 안되고, 박물관에 근무하게 해서도 안된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의과대학생에게 죽어 가는 생명을 구해야만 하는 위급한 환자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4. 21세기 박물관 전문지 양성을 위한 제언

현실을 감안해서 보면, 박물관 전문직원 채용을 입법 시행하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효능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직능별 자격요건을 제시한다.

〈인문사회예술계박물관의 경우〉

박물관의 학예연구직은 박물관학개론과 박물관학의 각론을 3과목이상 전문대학 수준이상의 교육인정기관에서 12학점이상 취득하고, 희망하는 분야의 전공필수과목을 12학점이상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인문사회예술관련학과목을 12학점이상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소정의 박물관실습과정을 12학점이상 취득한후에 박물관학예사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학 각론의 경우, 박물관학의 이론과 실습, 박물관의 역사와 변천, 박물관전시이론과 방법론, 박물관교육과 활동, 박물관자료의 수집과 정보관리, 박물관자료의 해석방법론, 박물관 자료와 인력의 교류, 박물관환경과 보존과학, 박물관건축과 조경, 박물관 경영과 판촉, 박물관 안전과 관리 등을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소정의 교과과정을 통과하면 누구나 학점취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문사회예술계의 전공필수과목은 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문학, 철학, 미학, 미술사학, 예술학, 서지학 등의 분과학문에서 그 대상과 영역을 한민족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강좌가 개설되었을 때 그리고 관련분과학문의 교과과정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를 전공필수과목으로 인정했을 때, 이를 허용하고 인정한다. 단 전공필수과목은 고고학과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가운데 1과목 3학점, 문학과 철학, 미학, 미술사학, 예술학, 서지학 가운데 1과목 3학점, 그리고 전공필수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은 분과학문 중에서 2과목 6학점을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허용하고 인정한다. 인문사회예술계의 관련학과목은 정부가 공인한 전문대학 수준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인문사회예술계의 강좌를 모두 허용하고 인정한다.

이러한 학점이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학점은행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정부가 공인하는 어떤기관에서든 학점을 취득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학예사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박물관실습과정 12학점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원 양성 교육제도에서 참고하여 입법시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대학이나 경향각지의 문화재연구소나 각종 국립박물관에서 전문영역별로 관련학과목의 강좌를 개설한다면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관련분야의 강좌를 이수할 것이다.

〈이공자연과학계박물관의 경우〉

박물관의 학예연구직은 박물관학개론과 박물관학의 각론을 3과목이상 전문대학 수준이상의 교육인정기관에서 12학점이상 취득하고, 희망하는 분야의 전공필수과목을 12학점이상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인문사회예술관련학과목을 12학점이상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소정의 박물관실습과정을 12학점이상 취득한후에 박물관학예사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학 각론의 경우, 박물관학의 이론과 실습, 박물관의 역사와 변천, 박물관전시이론과 방법론, 박물관교육과 활동, 박물관자료의 수집과 정보관리, 박물관자료의 해석방법론, 박물관 자료와 인력의 교류, 박물관환경과 보존과학, 박물관건축과 조경, 박물관 경영과 판촉, 박물관 안전과 관리 등을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소정의 교과과정을 통과하면 누구나 학점취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공자연과학계의 전공필수과목은 자연과학개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자연사, 과학사, 산업기술사 등의 분과학문에서 강좌가 개설되었을 때 그리고 관련분과학문의 교과과정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를 전공필수과목으로 인정했을 때, 이를 허용하고 인정한다. 단 전공필수과목은 자연과학개론, 자연사, 과학사, 산업기술사 가운데 1과목 3학점,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가운데 1과목 3학점, 그리고 전공필수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은 분과학문 중에서 2과목 6학점을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허용하고 인정한다.

이공자연과학계의 관련학과목은 정부가 공인한 전문대학 수준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이공자연과학계의 강좌를 모두 허용하고 인정한다. 이러한 학점이수 제도와 실습과정의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인문사회예술계박물관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박물관현실을 감안해 볼 때, 박물관법 개정과 동시에 상기에 언급한 제도적 장치들이 입법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 협의와 정책입안토론을 공청회에 상징함이 있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보다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는 형태와 수준에서 입법 시행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 이전의 박물관학예연구직에 대한 개정시안의 논의는 관련학과의 취업에 필요한 띄고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박물관을 빌미로 관련학과의 졸업생들에게 취업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진정 박물관의 진흥이나 박물관사업의 육성 보다는 자신들의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을 우선 겨냥한 것이다.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박물관 학예전문직의 자격시험과 요건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권고하는 박물관 전문직원의 자질과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비해서 지나치게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은 국제적으로 보아서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교육프로그램 또는 자격시험제도를 입법시행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는 없다.

〈참 고 문 헌〉

- 김홍남, 1992. 「미술사와 미술관」 『미술사와 박물관』 (청주: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 문명대, 1992. 「미술사와 학예직」 『미술사와 박물관』 (청주: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 박성용, 1994. 「민속박물관 연구원의 역할과 전문교육」 『민속박물관의 세계』 (온양: 온양민속박물관)
- 백승길, 1992. 「전문 학예직원의 자격 및 양성방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방안 토론회>
- 오일환, 1998. 「中國의 박물관과 박물관학」 『제4회 학예연구원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안동: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예연구회, 안동대학교박물관)
- 이난영, 1993. 『박물관학입문』, (서울: 삼화출판사)
- 최종호, 1996.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박물관학연구』 (대전: 대전보건전문대학) 창간호.
- 하계훈, 1996. 「박물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연구」 『박물관학연구』 (대전: 대전보건전문대학) 창간호
- 矢島國雄 外 3人編, 1996. 『博物館學事典』, (東京: 東京堂出版).
- Choe, J.H. 1994. *Dangi Culture through Museums (Collection, Docum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Material Culture of the Tribal Communities of Dangs* (Vadodara: M.S. University of Baroda), Ph.D. Thesis, Vol. I.
- De Varine, Hugues, 1995. A Short Evaluation of Recent Museum and Museology Movements in Bedekar, V. H. *New Museology for India* (New Delhi: National Museum Institute of History of Art, Conservation and Museology, National Museum)
- Pearce, Susan M., 1992. *Museums, Objects and Collections: A Cultural Study* (Washington D.C. :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Thompson, J.M.A., et al.(eds), 1984. *Manual of Curatorship: A Guide to Museum Practice* (London : Butterworths) (2nd)